

멸쟁법을 통해서 본 승가의 쟁사 해결 방법(2) 칠멸쟁법③

# 화합을 지키는 지도자만이 존경받는다

명쟁은 비구들이 어떤 비구의 행동을 잘못 된 것으로 비난했지만, 그 비난받은 비구는 자신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반론하여 발생하게 된다. 이 쟁사를 해결하는 세 번째 방법은 '현전비니+떡죄상'이다.

(3) 현전비니+떡죄상(覓罪相, tassapā piyyasikā)

떡죄상은 범계자가 자신의 죄를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고 대답을 회피할 경우, 승가 측에서 비구 자격을 일부 정지시키게 되는 징벌갈마의 일종이다. 빨리울에 의하면, 우월라(Uvāla)라는 비구는 승가에서 죄를 감문 받으면서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했다가 다시 죄를 지었다고 반복하고, 다시 죄를 지었다고 했다가 또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등 대답을 회피하며 발언에 일관성이 없었다. 그리하여 붓다는 우월라 비구에게 백사갈마에 의해 떡죄상갈마를 할 것을 허락하셨다고 한다. 이 갈마를 받은 자는 비구의 권리 중에서 중요한 18가지에 제약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구족계를 주어서는 안 된다거나, 정정비구의 포살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거나, 비구들과 어울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등이다. 이 떡죄상갈마는 처음부터 그 사건을 위하여 열리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검문하던 중 사건이 발생하고, 그 사건을 승가측에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떡죄상갈마에 여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① 부정(不淨) ② 무치(無恥) ③ 비난 ④ 승가가 그에게 떡죄상갈마를 행함 ⑤ 화합하여 여법하게 한다고 하는 다섯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즉 죄를 지어 부정한 자가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는데 다른 자로부터 비난당하여 승가가 그에게 떡죄상갈마를 하여 비구로서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승가의 화합을 유지하는 것이다.

### 3. 범쟁(犯諍, āpattādhikaraṇa)

범쟁은 율장의 계학처가 금지하는 범죄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쟁사를 가리키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1) 현전비니+자연치(自言治, paṭiñña)

자연치는 비구의 자발적인 고백을 받아들이 그에 합당한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죄를 지은 자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 그 자백에 따라 벌을 적용하는 것이다. 가벼운 죄일 경우에는 다른 비구를 찾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며, 보다 무거운 죄일 경우에는 승가의 갈마를 통하여 해결하게 되는데 이때 죄를 지은 당사자의 자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이 멸쟁법의 목적은 죄를 지은 본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납득하지 않는에도 무리하게 죄를 적용하여 갈마를 하는 것을 막는데 있다. <사분율>에 의하면, 15일 포살에 부처님께서는 그 자리에 모인 비구들 중에 청정하지 못한 자가 끼어 있다며 설계(誑戒)를 거부하신다. 그러자 목련 존자는 천안으로 그 범죄비구를 찾아내어 무리하게 밖으로 끌어내었다. 이를 목격한 부처님은 "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된다. 목련이여! 그로 하여금 죄를 인정하게 한 후에 죄를 주어야 한다. 스스로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 이후, 모든 비구를 위하여 자연치멸쟁(自言治滅諍)을 제정하니 이와 같이 자연치를 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자연치를 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점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죄를 지은 본인의 '올바른' 자백을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죄를 스스로 잘 모르거나 잘못 파악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일깨워주고, 그가 납득하여 자신의 죄를 인정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2) 현전비니+여초부지(如草覆地, tiṇavattthāraka)

여초부지는 현전비니의 법정에서 자연치로 해결이 안 되고 서로 대립하여 싸우고 있어,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수습하기 어려울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서로 화해하는 방법으로 쟁사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즉 승가가 적극적으로 조정을 시도하고 그것을 양쪽 비구들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구들이 서로 다투며 좋지 못한 말을 하는 등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청정한 비구를 찾아가서 참회하면 용서받게 되는데, 만약 승가의 전원이 서로 비난하며 두 파로 나뉘어 싸웠을 경우에는 청정 비구가 없어지므로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출죄(出罪)하는 것이다. 빨리울에 의하면, 비구들이 분열하여 서로 싸우고 쟁론하며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되었다. 이들이 이 죄에 대해 서로 단사(斷事)하면 승가에 심각한 싸움이 일어나 복잡해지고 결국 파승에 이를 위험성까지 있음을 알고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자, 붓다는 여초부지에 의해 해결하라고 하신다. 여초부지는 쟁론하는 양쪽 비구들이 모두 한 곳에 모인 뒤에, 한쪽 파의 비구 중에서 총명 유능한 비구가 나와 현재의 심각한 상황을 고하며, 자신을 비롯한 승가의 모든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죄를 덮어버리고 이 쟁사를 여초부지에 의해 해결하라고 제안한다. 다른 파의 비구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백이갈마에 의해 양쪽 비구들이 각각 받아들이면 여초부지에 의해 쟁사는 해결되는 것이다.

이 때, 바라나나 승잔죄와 같은 중죄(thūlavajja)나 제가상응죄(在家相應罪, ghipatīsamyyutta)는 제외된다. 이 몇 가지 중죄(重罪)를 제외하고 비교적 가벼운 죄는 양자



멸쟁법의 의의는 승가의 화합 유지에 있는 만큼 옳고 그름을 따져 정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방지하는 것이 우선이다. 사진은 부처님 오신 날 서울시를 행진하는 한국과 세계 각국 스님들

가 화해하고 모든 것을 불문에 불이기로 하는 것이 여초부지이다.

### 4. 사쟁(事諍, kiccādhikaraṇa)

사쟁은 승가의 갈마나 그 외의 행사 절차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그 유효성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쟁사이다. 빨리울에 의하면, 이 사쟁의 해결 방법은 현전비니이다. <심송율>도 빨리울과 마찬가지로 사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현전비니만을 들고 있으나, <오분율> <사분율> <마하승기율>은 칠멸쟁법 모두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 IV. 결론

이상으로 빨리울을 중심으로 불교 승가에서 발생하는 4종의 쟁사와 그 해결 방법인 7종의 멸쟁법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승가의 구성원들은 항상 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관대함을 지니고 있어야 하지만, 이미 쟁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멸쟁법에 근거하여 여법여율(如法如律)한 판단을 내려 올바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미 서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불교 승가가 제시하는 멸쟁법의 특징은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화합 승가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승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갖가지 대립이나 싸움을 적절하게 해결하고 가라앉혀 승가에 분열이나 불화가 일어나는 것을 막고, 여법하게 화합을 실현하여 안정된 승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멸쟁의 원어가 '아디카라나 사마타(adhikaraṇa-samatha)', 즉 '쟁사(아디카라나)를 가라앉힌다(사마타)'라고 하여, '해결한다' 같은 표현이 아닌 '가라앉혀 고요하게 한다'라는 의미의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부터도 엿볼 수 있다.

화합과 더불어 또 한 가지 멸쟁법을 통하여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여법설자에 의한 판단을 쟁사 해결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여법설자에 의한 쟁사의 해결은 다수결 방법을 이용할 경우에 특히 강조되고 있는데, 아무리 지지하는 자가 많다 하더라도 그것이 비법설자들에 의한 것이라면 그 결과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결국 승가의 쟁사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이 남기신 법과 율이며, 이 법과 율에 의거하여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존경받는 총명 유능한 비구, 즉 여법설자의 존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매우 까다로운 선별 자격조건을 통과해야 하며, 그만큼 이들이 내리는 판단은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다. 출가생활에서 평소 여러 가지 존경과 신망을 얻고 있던 비구들의 의견이 승가의 중대사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또한 승가의 구성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불교 승가는 화합 승가이어야 하며, 승가의 모든 구성원들은 화합을 위하여 서로 노력해야 한다. 특히 승가 지도자들의 임무는 승가의 화합을 지키는 것이며, 법과 율에 근거하여 승가의 화합을 지키는 지도자야말로 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불제자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덕망 높은 여법설자의 모습인 것이다.

시대의 흐름과 함께 불교 승가도 많은 변화를 겪어왔으며 지금도 곳곳에서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지만, 승가의 생명이 화합에 있다는 점은 그 어느 시대, 그 어떤 장소를 불문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진리임이 분명하고 있는 것으로부터도 엿볼 수 있다. (끝)

이처럼 동국대 HK연구교수(일본 동경대 박사)

### 마성 스님의 부처님이 말씀한 평화(4)

## 진정한 평화는 멸쟁(滅諍)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상의 도처에서 폭력과 테러가 자행되고 있다. 평화를 논할 때 빠지지 않는 단어가 '비폭력'이다. 평화를 파괴하는 주범이 폭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화주의자들은 폭력에 맞서 비폭력으로 대항하라고 말한다. 조계종 화쟁위가 발표한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불교인 선언-21세기 아쇼카 선언'에도 '비폭력'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흔히 비폭력의 원어가 '아힘사(ahimsā)'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아힘사는 '불해(不害)로 번역되며, '불살생(不殺生)', '불상해(不傷害)'로도 번역된다. 아힘사의 원래 의미는 '해한다' 또는 '죽인다'의 뜻인 힘사(himsā)에 아(a)라는 부정사가 붙은 말이다. 즉 '남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이 원래의 뜻이다.

아힘사라는 단어는 초기경전에도 몇 번 나온다. 이룰테면 <법구경> 261계에 "오직 네 가지 바른 진리를 깨달아 거기에 머물러, 계를 지켜 남을 해치지 않고, 감각 기관을 잘 다스려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지혜롭게 된 사람을 테라(Thera, 장로)라고 부른다"고 나온다. 또한 270계에 "그가 아리아(Ariya, 성자)가 아닌 것은, 그가 생명을 해치기 때문이다. 일체 생명을 해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아리아라 부른다"고 나온다.

<디가 니까야>에 "진리와 법과 길들임과 제어, 청정함과 계와 포살, 보시와 불해(不害), 비폭력을 좋아하고, 굳건하게 받아 지녀 평등함을 실천한다" [DN III, p.147; 각목 율집, <디가 니까야> 3권(초기불전연구원, 2006), p.267]라는 대목이 나온다.

각목 스님은 빨리 아힘사(ahimsā)를 '불해(不害)'로, 아사하사(asāhasa)를 '비폭력'으로 번역했다. '아사하사'는 '납득하지 않음', 즉 '비폭력'을 뜻한다. 이처럼 '불해'와 '비폭력'은 본래 다른 말이다. 그런데 자이나교(Jainism)에서는 아힘사가 '비폭력(nonviolence)'의 의미로 주로 쓰인다. 특히 '비폭력'이라는 단어는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 1869-1948)와 미국의 침례교 목사이자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1929-1968)이 사용함으로써 널리 알려졌다.

킹 목사가 사용한 비폭력이란 폭력에 대항하여 싸우는 투쟁 수단을 말한다. 따라서 비폭력도 폭력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투쟁에 불과하다. 한편 비폭력과 같은 의미로 '무저항주의(無抵抗主義)'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비폭력'이나 '무저항주의'도 원래의 아힘사(불해)의 의미와는 약간 다르다. 불교에서 말하는 아힘사의 원래 의미는 '상처 입히지 않기(not hurting)'다.

이 단어 속에 남과 다툰다는 의미는 없다. 불교는 '격분하지 않음', 즉 '무분격(無憤激, asārambha)' 혹은 '걱정 없는', '해치지 않는(asāradhā)' 것을 이상으로 여긴다. 따라서 진정한 평화는 아힘사의 정신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마스다니 후미오(増谷文雄)가 지적한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이 서로 이해를 따라 아귀다툼하는 상태를 종식시키고, 이 세계를 진정한 평화의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힘사(무해)의 덕목이 요청된다.

이 덕목은 내가 나에게 소중하듯이 남들도 저마다 자기가 소중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정신에서 사랑과 자비도 생겨나는 것이며, 평화와 번영도 구축된다. 원효의 화쟁론(和諍論)에서 화쟁의 궁극적 목표는 '화합(和合)'에 있으며, 이것을 멸쟁법(滅諍法)이라고 말한다.

즉 '다툼 없음[無諍]' 혹은 '다툼의 소멸[滅盡]'을 원칙으로 한다. 진정한 평화는 '비폭력'이 아니라 '멸쟁' 혹은 '무쟁'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동국대 HK연구교수(일본 동경대 박사)



마성 스님(팔리문헌연구소장)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는

보건복지가족부공인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 자격과정   | 교육기간            |
|--|-----------------|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br>※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 14주 과정<br>토요일 반 |

접수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의 02)3147-2020 www.kile.or.kr

지부교육원

창원 055-543-6155 호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산 051-441-0111  
울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구 053-566-1116 해운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인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한방(韓方)치료로**  
**갑상선, 통풍, 류마티스 관절염, 척추질환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은  
**상담 받아 보세요.**

난치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본인 또는 가족으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문의하십시오

**한솔한의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10408-중-8421호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국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르형강판,  
사철(대응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슬라브,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